

한 · 일 경제협회 조석래 회장 재선임

정기총회에서 제10대 회장에 ... 자유무역협정 타결 위해 노력할 것

한 · 일 경제협회는 2월26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을 제10대 회장으로 재선임했다.

조석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“서먹해졌던 한 · 일관계가 새 정부 출범과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”이라며 “2008년은 한 · 일 경제인들이 바라고 있는 한 · 일 자유무역협정(FTA)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총회에서는 조석래 회장과 함께 임기가 만료된 김윤(삼양사 회장), 류진(풍산그룹 회장), 박삼구(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), 서민석(동일방직 회장), 신동빈(롯데그룹 부회장), 조양호(한진그룹 회장) 부회장 등 부회장단과 이길현(경원 회장) 감사도 재선임됐다.

한 · 일경제협회는 5월15일부터 5월17일까지 일본 치바현 우라야스시에서 2008년 한 · 일경제인회의를 개최키로 했다.

회의에서는 <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양국간 협력방안>이라는 대주제 아래 산업 · 기술경쟁력 강화, 균형 있는 무역확대 방안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8/02/26>